

2023년 10월 29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30 주일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온라인(Zoom)
 (문의 : 김우경 가브리엘라)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10 월]



복음화 지향 : 시노드

교회가 모든 차원에서 경청과 대화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세상의 변방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 성자의 거룩한 영을 따라 아버지만을 섬기며, 형제들을 사랑하여야 하겠습니다. 성자께서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제1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22,20-26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억누른다면 나는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화답송 시편 18(17),2-3 7.3 ㄴ ㄷ -4.47과 51 (◎ 2)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1,5 ㄴ -10

<여러분은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34-40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영성체송 시편 20(19),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영성체 후 묵상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주님의 계명을 우리는 명심하여 실천하고 있습니까? 초대 교회 신자들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실천하였습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을 본받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정진만 안젤로 신부 ♣

이웃에 대한 사랑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뒤에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21,23-22,14 참조), 바리사이들(22,15-22 참조), 사두가이들에(22,23-33 참조) 이어서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집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 교사는 율법에서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지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모든 율법 조항이 도출되는 하나의 원리를 찾고자 하였던 라삌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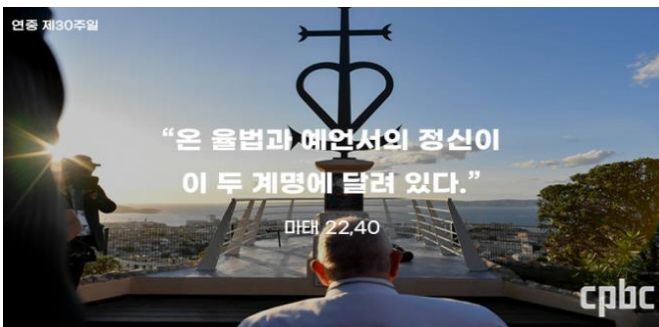
예수님께서서는 율법 조문을 인용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인용된 조문은 '쉐마'('너희는 들어라.'는 뜻)에 해당하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이 구절은 모든 율법의 근원이자 믿음의 대상인 하느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포함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조문을 아침과 저녁, 곧 하루에 두 번 암송하면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지켜야 할 정체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계명은 하느님께서서는 한 분이시므로, 하느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 19장 18절이 인용됩니다. 이 계명에 따르면 이웃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사랑을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웃 사랑도 하느님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계명으로서 이 두 계명은 뗄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제 1 독서에 따르면, 모세의 법은 이웃, 특별히 이방인, 과부와 고아, 가난한 이와 같은 약자에 대한 보호를 중요한 가르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주위의 이웃을 하느님처럼 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방식에 따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춘배 신부님의 "생활 속의 복음" 아래 이미지 클릭]



| 연중 제 30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램브란트 작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7).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성 시몬과 성 유다(타대오) 사도 축일 (10월 28일)

시몬 성인과 유다 성인은 열두 사도의 일원입니다.

시몬 사도는 카나 출신으로 열혈당원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으며 그는 주로 페르시아 지역에서 선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도 시몬은 그에게 붙여진 '혁명당원'(마르 3,18; 루카 6,15)이라는 별명처럼 하느님 외에는 어떠한 통치자도 인정하지 않고 무력으로라도 로마제국의 압제에 항거하여 이스라엘을 되찾고자 뭉친 젤롯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사도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과 구별하여 '타대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유다 서간 저자인 유다 사도는 유다 지역에서 선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도는 예수님의 친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언급되는 복음 구절에 같은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마태 13,55)

□ 성 유다 타대오께 드리는 9일 기도 <https://tinyurl.com/42zjku4d>

□ [성물언박싱 - "가톨릭 성물과 기도에 관한 모든 것!"]

함께 활동하고 순교했던 시몬과 유다 타대오 - 황인철 베드로 신부님 영상링크 - <https://tinyurl.com/2yrv2vyj>



< 성 시몬과 성 유다 타대오와 함께 성모자 >
페데리코 바로치 (Federico Barocci)

모든 성일 대축일(11월 1일) 나기정 신부님의 전례 설명 https://fr.catholic.or.kr/jhs/liturgy/festival11_2.htm

로컬 다문화 미사 안내 (이날 우리 공동체 미사(오후 3시)는 로컬 다문화 미사로 대체됩니다.)

로컬 다문화 미사 (11월 5일(주일) 오전 10시, 아란다 성당)에서 우리 공동체는 입당 성가로 '현덕의 꽃'을 봉헌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성가를 들어보시고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신자분들 연습은 10월 29일(주일) 미사 전에 있습니다. [성가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kKNtmv5Qao>

이-팔 전쟁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난 10월 22일 연중 제 29 주일 삼종기도 후 인사말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며 모든 분쟁의 종식을 촉구하셨습니다.

"전쟁,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생각해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쟁은 패배만 남길 뿐입니다. 전쟁은 언제나 패배만 남기고 인간의 형제애를 무너뜨립니다. 형제 여러분, 전쟁을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라고 하시면서 우려와 슬픔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 인질, 부상자,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긴급구호 - <https://tinyurl.com/2mukvted>

♡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후원 - <https://tinyurl.com/554483wy>

♡ 호주카리타스 후원 - <https://www.caritas.org.au/donate/emergency-appeals/gaza-crisis/>

캔버라대교구 마리안 프로세션 관련 기사

지난 10월 22일 캔버라대교구는 골번 St Peter and Paul's Old Cathedral 에서 처음으로 마리안 프로세션을 진행하였고 350명 이상의 신자분들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catholicvoice.org.au/marian-procession/>



| 연중 제 30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7까지 손쉬운 방법

단계별 채식 도전하기

1. 하루 고기 먹었으면 다음 날은 쉬어주기
2. 채소류로 만든 음식을 점점 더 많이 먹어보기
3. 채식식당 찾아보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전기장판 사용 1시간 줄이기

→ 0.48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와 환경생태 보호를 위해 일회용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음식나눔, 다과 등의 행사시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

안소근 실비아 수녀의 구약 중주

25 강 히까이서, 즈카르야서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하카이와 즈카르야는 백성을 독려하여 성전 재건에 착수하게 합니다.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58 강]

엘리사 최후의 예언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열왕기 9 부 | 2 열왕 13-14 장
아모스 | 호세아 | 요나

떼제(taize) 기도

5 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기도해요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5 분 기도 -5-] 그는 사막의 덩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17,5-8)

□ 미사 참례자수

10 월 15 일	성인 55 아이 27	10 월 22 일	성인 54 아이 25
-----------	-------------	-----------	-------------

□ 우리들의 정성 (10 월 21 일(토)~27 일(금))

권묘순	김요한	김정수	김태룡	남궁영근	서진원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장호훈	조성희	주정자	최민식	황정빈
교무금 \$750 (16 가정) / 봉헌금 \$382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 전례분과)

	10 월 29 일 연중 제 30 주일	11 월 5 일 연중 제 31 주일
독서	이상명 다니엘, 주정자 루치아	로컬 다문화 미사
예물봉헌	사목회	로컬 다문화 미사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29 일) 사목회 → (11 월 5 일) 로컬 다문화 미사 → (12 일) 요한반 → (19 일) 루카반
- 미사 후 친교 (매월 첫째주 식사, 셋째주 간식): (11 월 5 일) 로컬 다문화 미사 후 식사나눔 → (19 일) 마르코반
- 묵주기도성월 미사 전 묵주기도: (29 일) 사목회

□ 미사성가 안내 ※ 반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 전례분과)

	입 당	예 물	영 성 체	파 견
10 월 29 일	31 <u>이 크신 모든 은혜</u>	511 <u>미약하온 우리 제물</u>	163 <u>생명의 성체여</u>	77 <u>주 천주의 권능과</u>
11 월 5 일	<u>꽃 - 현덕</u> (악보)	로컬 다문화 미사	로컬 다문화 미사	로컬 다문화 미사